

# The Current State and Determinants of Korean Baby Boomers' Welfare Consciousness

Hyoung-Ha Lee \*

## Abstract

This study was conducted in order to assess the effect of variables influencing Korean baby-boomers' welfare consciousness. For this purpose, data from the 8<sup>th</sup> supplementary survey of the Korea Welfare Panel in 2013 were analyzed. The subjects of analysis were 2,035 people who were born between 1955 and 1965 whose welfare panel data did not have missing values for the variables of the research model.

According to the results of analysis, first, when the descriptive statistics of the major variables were analyzed, those showing a relatively high mean score among the sub-factors of the baby-boomers' welfare consciousness were 'expansion of expenditure for public assistance' (mean 3.65, SD .557), 'expansion of expenditure for social insurance' (mean 3.53, SD .646), and 'expansion of expenditure for social services' (mean 3.26, SD .424). The mean score of the baby-boomers' overall welfare consciousness was relatively high as 3.45 (SD .428), advocating the expansion of welfare expenditure.

Second, the independent variables influencing the baby-boomers' welfare consciousness was found to have explanatory power of 12.9%. In the results of regression analysis, variables found to have a significant effect were gender ( $B=.100$ ,  $t=2.573$ ,  $p<.01$ ), personal responsibility for poverty ( $B=-.151$ ,  $t=-3.635$ ,  $p<.01$ ), social responsibility for poverty ( $B=.149$ ,  $t=3.437$ ,  $p<.001$ ), and recipient's laziness ( $B=.251$ ,  $t=6.578$ ,  $p<.001$ ). Based on these results were discussed major relevant policies.

▶ Keyword : baby boomer, welfare consciousness, social insurance, public assistance, social service

## I. Introduction

한국의 베이비부머에 대한 일반적인 정의는 1955년에서 1963년에 태어난 인구로 통용된다. 6·25 전쟁 직후 출산율이 증가함에 따라, 1955년생만 73만 8천명으로 1954년생보다 11만명이 많으며, 1957년 한 해에 태어난 신생아 수는 1941년 신생아 수의 2배에 달하였다[1]. 기간으로 살펴보면 1955년에서 1963년 사이에 태어난 신생아 수는 1947년부터

1954년 사이에 태어난 출생자수보다 180여만 명이 많았다 [2]. 1958년 이후에는 한 해에 81만~87만 명이라는 많은 수의 인구가 태어났다. 이렇듯 출산율은 1955년부터 증가하기 시작하여 1959년 정점을 찍고 1963년여까지 높은 출산율을 (86만 8천명)을 유지하였다[3].

베이비부머들은 압축적인 산업화의 과정에서 상당수가 고등 교육을 받았고 고도성장의 혜택을 누린 세대이다. 아날로그시

• First Author: Hyoung-Ha Lee, Corresponding Author: Hyoung-Ha Lee  
\*Hyoung-Ha Lee (hhlee62@kwu.ac.kr), Dept. of Social Welfare, Kwangju Women's University  
• Received: 2016. 03. 25, Revised: 2016. 04. 12, Accepted: 2016. 05. 26.

대에 교육을 받았지만 중장년시기에는 디지털시대를 살았던 세대로, 이들은 노후에 활발한 사회참여를 희망하는 등 활동적 노후에 대한 욕구가 강할 것으로 예견되고 있다[4]. 그러나 베이비부머는 부모부양, 자녀교육, 결혼과 동시에 본인의 노후를 준비해야 하는 3중고를 경험하고 있기도 하다[5].

베이비부머는 현재의 노인세대와 다른 성장배경과 노동시장 경험 그리고 문화적 특징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 세대의 특성을 반영한 국내 연구는 아직 미흡하다. 한국에서는 주로 현재의 노인세대에 초점을 두고 인구고령화 및 인구학적 변화 요인, 퇴직 및 은퇴, 노후소득보장, 자원봉사 및 여가활동 등을 중심으로 한 사회참여, 그리고 노인 학대 및 노인폭력 등의 다양한 주제를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 되어 왔다. 최근에 와서야 베이비부머가 은퇴 시점에 도달함에 따라 이들의 은퇴가 가져올 사회경제적 파급효과로 인해 세대적 특성을 반영한 논의가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다. 국내의 경우 베이비부머가 본격적으로 은퇴를 시작하는 시점에 직면하여 이들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으며, 최근 이들이 갖는 세대 특성들에 대한 기초 연구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상황이다[5]. 이들의 특징은 무엇보다도 현재 진행 중인 인구고령화의 급속한 진행을 초래하게 하는 주체세대이며, 현재의 노인세대에 비해 높은 교육 수준, 자산소득 그리고 다양하고 전문적인 경력을 가지고 있는 점 등이 긍정적 특성으로 지적하고 있다. 반면, 이질적 구성으로 인한 높은 노후 불평등 및 노후소득대책 마련의 미흡, 그리고 이중적 역할 기대에 따른 자아정체감 부족 및 정신건강의 악화 등과 같은 부정적 특성도 동시에 지적되고 있다[6]. 부연컨대, 이들이 안고 있는 노후 소득보장, 건강한 노후 생활, 돌봄 지원 및 활동적 사회참여 등에 관한 복지욕구를 살펴보면 현재의 사회시스템과 사회보장제도는 베이비부머를 모두 수용하기에는 인프라가 매우 부족하고 특히 이들은 '복지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6].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이비부머를 대상으로 한 성장과 분배에 대한 관점이나 복지제도에 대한 시각을 연구하거나, 빈곤에 대한 개인적 사회적 책임에 대한 분석, 이러한 사회문제 극복을 위한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서비스의 확대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이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규명하고자 하는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베이비부머들의 복지태도, 빈곤원인, 복지의식은 어느 정도인가? 둘째, 베이비부머의 복지태도, 빈곤원인은 복지의식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이다.

## II. Theoretical Background

### 1. Welfare Consciousness, Welfare Attitudes

복지의식이란 복지 및 그와 관련된 사회현상들에 대한 사람들의 마음의 내용으로 복지에 대한 감정과 인상 그리고 가치와 신념 그 자체를 의미한다[7]. 우아영(2000)과 구혜영(2015)은 복지의식이란, 사회적 형평성 및 복지책임 주체에 대해서 갖는 '복지의식'이자 복지제도와 복지비용 등 실제 정책이나 사업 등에 대한 직접적인 지지 및 참여를 의미하는 '복지태도'를 포함하는 의미로 설명하였다[8][9].

Taylor-Gooby(1985)[10]는 전반적인 사회복지제도에 대한 지지여부, 복지비용의 문제, 재분배, 복지국가의 정당성 등에 대한 사회적 흐름 내지 사회적 태도를 복지태도(welfare attitudes)라고 규정한 바 있다. 이처럼 복지의식은 가치, 태도, 행동지향 등을 포괄하는 개념으로서, 사회복지발달과 상호 밀접한 관계를 지니고 있다. 따라서 복지의식이란 사회구성원들에게 공유되고 있는 복지의식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인간의 복지를 추구하는 사회제도 혹은 사회복지체계 등을 대상으로 하는 인간의 가치지향이나 태도로 개념규정 할 수 있다[11].

이러한 복지의식은 주로 가치차원의 문제로 국한하여 살펴보면, 첫째, 소득과 재산에 대한 평등의식이다. 즉, 한 사회의 소득과 재산이 얼마나 평등하게 분배되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는가의 문제이다. 불평등이 심하다고 인식하는 경우는 복지의식에 있어 각종 사회보장의 확대를 통해 불평등의 완화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둘째, 성장과 분배에 대한 우선순위이다. 성장을 강조하는 집단들은 개인의 자율적 경쟁을 강조하고 그에 따른 분배의 차이를 강조하면서 실업급여나 공공부조 확대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복지의식을 나타낼 것이다. 셋째, 수급자를 바라는 보는 태도에 있어서도 사회구조적인 문제로 인해 필연적으로 가난한 사람이 발생하는지, 아니면 개인의 게으름의 결과로 발생하게 되는지 상이한 태도를 보일 것이다. 즉 사회구조적인 문제로 바라보는 입장에서는 긍정적인 복지의식을 가질 것이며 개인적인 책임으로 돌리는 경우는 부정적인 복지의식을 가질 것이다. 넷째, 복지의 대상을 보편주의로 확대할 것인가, 선별주의로 제한적으로 적용할 것인가의 가치관이다. 보편주의 태도의 경우는 긍정적인 복지의식을 보일 것이며, 선별주의 입장의 경우는 부정적인 복지의식을 나타낼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복지의식과 복지태도를 구분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복지의식은 한국의 주요 사회보장의 범위한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서비스를 중심으로 한 재정지출의 확대에 대한 찬성과 반대의 경향을 의미한다. 복지태도는 주로 가치의 문제로 소득과 재산의 불평등 정도에 대한 인식, 성장과 분배의 상대적 중요성, 빈곤층의 태도와 게으름에 대한 태도, 가난한 사람에게 제한적으로 복지수급을 시행하는 선별주의 등을 의미한다.

## 2. Poverty Causes

사회대중의 빈곤원인 인식은 역사적으로 끊임없이 논란과 갈등의 이슈가 되어 왔다. 사회대중의 빈곤원인 인식에 대한 본격적인 분석은 Feagin(1972)[12]의 연구가 최초로, 그는 11개의 빈곤원인 항목을 활용하여 미국사회의 빈곤원인 인식의 성향을 분석하였다. 그는 미국사회의 빈곤층 및 빈곤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과 잘못된 고정관념이 빈곤 및 복지정책의 확충에 주요한 정치적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음에 주목하여, 대중의 빈곤원인 인식 실태와 특성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 빈곤원인 인식은 개인책임(individualism), 사회구조책임(structuralism), 운명주의(fatalism) 등의 세 가지의 인식 유형으로 구성되고, 미국에서는 개인책임 인식이 두드러짐을 확인하였으며, 그리고 이와 같은 대중인식이 미국 빈곤정책의 잔여적 특성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음을 지적하였다[13].

빈곤자들의 대중들의 인식과 복지태도간의 관계성을 연구한 Gilens(2009)[14]의 연구에서도 빈곤한 사람은 나태하다는 인식이 복지지출에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빈곤의 개인책임성을 지지하는 분석결과이다[7]. 한국의 경우도 이호(1996)의 연구에서 빈곤층은 독특한 빈곤문화가 존재하는 것을 밝혔다. 즉, 빈곤층은 정서적으로 결핍되어 있거나 의존심이 강하다거나 도박성 혹은 음주 등의 문제가 있다는 빈곤의 개인적이고 운명론적인 요인이 있음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빈곤원인을 사회구조적인 요인의 결과로 보는 시각도 존재한다. 주로 갈등주의적 입장에서 빈곤원인의 개인책임성이나 운명론적인 시각에서 벗어나 부의 불평등한 대물림, 학력과 같은 인적자본의 불평등, 이중노동시장 등을 원인으로 지적한다.

## 3. Previous Researchs

인구사회학적인 요인인 교육수준과 소득수준에 따른 복지인식의 관계에 대한 이중섭(2009)[7], 최균과 류진석(2000)[15], 류만희와 최영(2009)[16] 등의 연구에서 학력이 높을수록 친복지적 의식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김상균과 정원오(1995)[11], 이인재(1998)[17], 김신영(2010)[18]의 연구에서는 소득수준이 높은 집단이 사회복지의식이 더 높다는 결과가 제시되었다. 최근 한국복지패널 8차자료를 이용한 이흥기와 박영준(2015)[19]의 연구에서는 가구의 경제적 수준이 높을수록 친복지적 인식을 가지는 정치태도(정치에 관심이 많거나 만족하는 경우, 정치적 성향이 진보적인 경우)를 가지고 있었고 경제적 수준이 낮을수록 복지인식이 낮은 정치적 태도(정치에 관심이 없거나 불만족하는 경우, 정치 성향이 보수적인 경우)를 가지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하지만 Murri(2010)[20]는 교육수준과 소득수준, 계급관련 요인이 복지인식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하였다[21]. 여기서 주목할 영향 요인 중 이중섭(2009)[7]의 연구결과에서는 연령이 높을수록 공공복지 확대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는 반면, 김민주와 지은구(2015)[21]의 연구에서는 연령은 유의미한 영향력을 보이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 III. Research Method

### 1. Research model

본 연구의 독립변수는 사회인학적 변수와 복지태도이며, 종속변수는 복지인식이다. 본 연구의 연구모형은 <Fig. 1.>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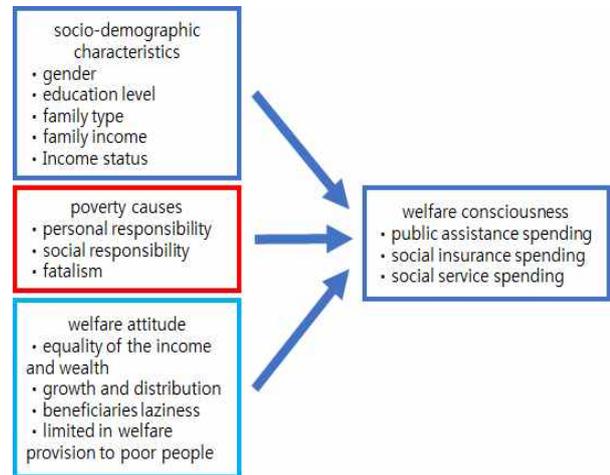


Fig. 1. Research model

### 2. Data collection and analysis

본 연구의 조사대상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에서 실시하는 한국복지패널의 8차(2013년) 부가조사 자료이다. 한국복지패널은 조사대상에 제주도와 농어가 가구를 모두 포함하여 전국을 대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연령, 소득계층, 경제활동상태 등에 따른 다양한 인구집단별로 생활실태와 복지욕구 등을 역동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패널이다. 한국복지패널에서는 3년마다 복지인식에 대해 부가조사를 실시하며 현재까지 2차(2007년), 5차(2010년), 8차년도 조사결과가 공개되어 있다. 분석대상은 복지패널 데이터에서 연구모형의 변수에 대한 결측값이 없는 출생연도가 1955년생부터 1965년생까지 2,035명이다(Table 1. 참조).

Table 1. Birth Year Distribution

Birth Year	Frequency	%	Birth Year	Frequency	%
1955	214	10.5	1960	271	13.3
1956	226	11.1	1961	231	11.4
1957	208	10.2	1962	230	11.3
1958	211	11.0	1963	221	10.9
1959	223	13.3	합계	2035	100.0

### 3. Measuring Tools

본 연구의 주요변수로는 사회인구학적 변수로 성별, 학력, 가구형태, 월소득, 소득지위 등을 활용하였다. 주요 독립변수로는 빈곤원인 11문항, 복지태도 4문항, 종속변수로는 복지의식 10문항으로 측정하였다. 분석결과 독립변수인 빈곤원인의 신뢰도는 .777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종속변수인 복지의식의 신뢰도는 .754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구체적인 주요문항 구성은 아래와 같다(Table 2. 참조).

Table 2. The Main Measure Items

Distinction		Question (range)	Cronbach's alpha
welfare consciousness (public assistance, social insurance, social service spending)		10 item (1=much less spending, 5=much more spending)	.754
poverty causes		Feagin(1972) 11 item (1=not important at all, 4=very importance)	.777
welfare attitude	income and wealth inequality	1 item (1=very equal 매우평등, 7=very unequal)	-
	importance of growth and distribution	1 item (1=growth was the only thing that mattered.. 4=distribution was the only thing that mattered)	
	the poor are lazy	1 item (1=very agreed, 5=very opposed)	
	welfare provides limited to the poor	1 item (1=very agreed, 5=very opposed)	

게 나타났다. 둘째, 베이비부머의 학력은 고등학교졸업 이상 43.1%, 중학교졸업 이상 21.4%, 무학 내지 초등학교 졸업 18.4%, 전문대학 이상 졸업 17.1% 순으로 분석되었다. 셋째, 가구형태는 비사회적배려가구 91.3%, 사회적배려가구 8.7%로 나타났다. 넷째, 가구 월소득은 500만원 이상 27.7%, 300만원 이상~400만원 미만 17.1%, 20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 16.3%, 100만원 이상~200만원 미만 14.2%, 400만원 이상~500만원 미만 12.6%, 100만원 미만 7.2% 순으로 나타났으며 가구의 월평균소득은 443.8만원으로 분석되었다. 다섯째, 소득지위는 균등화소득에 따른 가구구분(중위 균등화소득 60%기준)으로 일반가구 80.2%, 저소득가구 19.8%로 나타났다.

Table 3. Summary of Respondent Characteristics

		Frequency	%	
gender	male	977	48.0	
	female	1058	52.0	
education level	uneducated, elementary school	375	18.4	
	middle school	436	21.4	
	high school	877	43.1	
	more than a college	347	17.1	
family type	social consideration family	178	8.7	
	not a social consideration family	1857	91.3	
family income	less than 1 million	146	7.2	average = 443.8 million
	less than one million to 2 million	289	14.2	
	less than 2 million to 3 million	332	16.3	
	less than 3 million to 4 million	348	17.1	
	less than 4 million to 5 million	257	12.6	
	more than 5 million	564	27.7	
Income status	low-income families	402	19.8	
	ordinary families	1633	80.2	

## IV. Results of the study

### 1. Characteristics of the main variables of the study subjects

베이비부머 세대의 주요 특성은 다음과 같다(Table 3. 참조). 첫째, 베이비부머 중 여성이 52.0%로 남성 48.0%보다 많

### 2. Descriptive statistics analysis of key variables

#### 2-1. The average analysis of key variables

베이비부머의 복지태도, 빈곤원인, 복지의식에 대한 평균은

다음과 같다(Table 4. 참조).

베이비부머의 복지태도 중 '소득과 재산의 평등정도'는 평균 5.39(표준편차 1.269)로 비교적 불평등이 높다고 분석되었다. '성장과 분배의 중요성'은 평균 2.52(표준편차 .842)로 성장과 분배 모두 중요하다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초생활수급자는 게으름'에 대해서는 2.83(표준편차 1.017)으로 다소 기초생활수급자가 게으르다고 분석되었다. '복지는 가난한 사람에게 제한적으로 제공되어야 함'에 대해서는 평균 2.67(표준편차 1.058)으로 다소 선별적인 복지제공 태도를 나타냈다.

빈곤원인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 '개인책임'은 평균 3.09(표준편차 .488)로 개인에게 책임이 비교적 높다고 분석되었다. '사회책임'은 2.80(표준편차 .556)으로 사회의 책임도 비교적 높다고 분석되었다. '운명론'은 평균 2.20(표준편차 .848)으로 운명적 빈곤에 대해서는 낮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베이비부머의 복지인식 중 '공공부조에 대한 지출 확대'는 평균 3.65(표준편차 .557). '사회보험에 대한 지출 확대'는 평균 3.53(표준편차 .646), '사회서비스에 대한 지출 확대'는 3.26(표준편차 .424)으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복지인식의 전체 평균은 3.45(표준편차 .428)으로 비교적 높은 복지 지출 확대 의견을 나타냈다.

Table 4. The average analysis of the main variables

		N	M (range)	S.D.
welfare attitude	equality of the income and wealth	650	5.39 (1~7)	1.269
	growth and distribution	650	2.52 (1~4)	.842
	beneficiaries laziness	650	2.83 (1~5)	1.017
	limited in welfare provision to poor people	650	2.67 (1~5)	1.058
poverty causes	personal responsibility	650	3.09 (1~4)	.488
	social responsibility	650	2.80 (1~4)	.556
	fatalism	650	2.20 (1~4)	.848
welfare consciousness	public assistance spending	645	3.65 (1~5)	.557
	social insurance spending	650	3.53 (1~5)	.646
	social service spending	633	3.26 (1~5)	.507
	total	632	3.45 (1~5)	.428

2-2. The main variables Correlation analysis

주요 변수간의 상관관계를 보면 <Table 5.>와 같다. 종속변수인 복지인식은 독립변수인 성별(r=.090, p<.05), 빈곤의 개

인책임(r=-.097, p<.05), 빈곤의 사회책임(r=.133, p<.01), 소득재산 불평등(r=.090, p<.01), 성장보다 분배의 중요성(r=.086, p<.05), 수급자는 게으름(r=.273, p<.01)은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베이비부머가 남성이고, 빈곤의 개인책임에 대해 부정적일수록, 빈곤의 사회적 책임의식이 강할수록, 소득과 재산이 불평등하다고 인식할수록, 성장보다는 분배가 더 중요하다고 여길수록, 수급자는 게으르다고 인식이 높을수록 복지인식은 높다는 것을 분석되었다.

베이비부머의 학력, 가구소득, 가구형태, 소득지위, 빈곤에 대한 운명론, 복지는 가난한 사람에게 제한적으로 제공 등의 변수는 복지인식과는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Table 5. Correlation analysis table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	1	.235	.073	.060	.042	.048	.046	-.075	-.005	-.067	.007	.005	.090
2		1	.323	.140	.224	.043	.003	-.021	-.067	-.078	.088	.056	-.015
3			1	.256	.438	.002	-.108	.021	-.068	.014	.013	.117	-.064
4				1	.318	.046	-.043	-.023	.012	.051	-.063	.045	-.003
5					1	-.034	-.055	.010	-.088	-.007	-.066	.111	-.074
6						1	.368	-.277	.057	-.049	-.075	-.049	-.097
7							1	-.380	.063	.063	.057	.014	.133
8								1	-.033	.024	-.088	.038	-.070
9									1	.146	.007	-.114	.090
10										1	.042	-.023	.066
11											1	.040	.273
12												1	-.004
13													1

- 1.gender(female=0) 2.education level 3.family income
- 4.family type(0=social consideration family)
- 5.income status(0=low-income families )
- 6.personal responsibility 7.social responsibility 8.fatalism
- 9.equality of the income and wealth 10.growth and distribution
- 11.beneficiaries laziness 12.limited in welfare provision to poor people 13.welfare consciousness

2-3. Regression analysis of the factors influencing the welfare-consciousness

베이비부머의 복지인식에 독립변수의 영향력을 분석을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기 전, 독립변수들 간의 다중공선성(multicollinearity)이 있는 지를 알아보기 위해 분산팽창계수(VIF: Variance Inflation Factor)를 분석한 결과 모든 변수에서 VIF 계수가 3을 넘지 않아 다중공선성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베이비부머의 복지인식의 하위요인(공공부조 지출 확대, 사회보험 지출 확대, 사회서비스 지출 확대)별 독립변수별 영향력에 대한 분석결과는 <Table 6.~9.>와 같다.

첫째, 베이비부머의 공공부조 지출확대에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수들은 10.2%의 설명력을 가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회귀분석결과, 성별( $B=.100$ ,  $t=2.560$ ,  $p<.05$ ), 학력( $B=-.107$ ,  $t=-2.633$ ,  $p<.05$ ), 빈곤의 사회책임( $B=.114$ ,  $t=2.621$ ,  $p<.01$ )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즉, 베이비부머가 남성일수록, 학력이 낮을수록, 빈곤의 사회책임을 높게 인식할수록 공공부조 지출 확대가 더 높아져야 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Table 6. Regression analysis of Public-assistance expenditure expansion

	B	<i>B</i>	t	VIF
(constant)	2.984		12.170***	
gender	.111	.100	2.560*	1.077
education level	-.060	-.107	-2.633*	1.167
family income	-.001	-.040	-.949	1.261
family type	.093	.053	1.286	1.204
Income status	-.063	-.044	-1.011	1.325
personal responsibility	-.044	-.039	-.919	1.241
social responsibility	.114	.114	2.621**	1.326
fatalism	-.017	-.026	-.619	1.217
equality of the income and wealth	.026	.060	1.553	1.053
growth and distribution	.035	.052	1.353	1.049
beneficiaries laziness	.122	.223	5.810	1.037
limited in welfare provision to poor people	.017	.032	.840	1.041
R2 = .102 F = 5.995***				

\* $p<.05$ , \*\* $p<.01$ , \*\*\* $p<.001$

둘째, 베이비부머의 사회보험 지출확대에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수들은 9.5%의 설명력을 가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회귀분석결과, 소득지위( $B=-.100$ ,  $t=-2.301$ ,  $p<.05$ ), 빈곤 개인책임( $B=-.165$ ,  $t=-3.972$ ,  $p<.001$ ), 수급자는 게으름( $B=.179$ ,  $t=4.662$ ,  $p<.05$ )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즉, 베이비부머가 소득지위가 낮을수록, 빈곤의 개인책임이 덜 할수록, 수급자는 게으르다는 인식이 높을수록 사회보험 지출 확대가 더 높아져야 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Table 7. Regression analysis of Social-insurance expenditure expansion

	B	<i>B</i>	t	VIF
(constant)	3.408		11.907***	
gender	.069	.053	1.364	1.075

education level	.024	.037	.909	1.165
family income	-.001	-.043	-1.024	1.262
family type	.117	.057	1.386	1.204
Income status	-.167	-.100	-2.301*	1.327
personal responsibility	-.220	-.165	-3.972***	1.215
social responsibility	.073	.063	1.459	1.316
fatalism	.010	.013	.320	1.218
equality of the income and wealth	.035	.068	1.761	1.051
growth and distribution	.052	.068	1.757	1.050
beneficiaries laziness	.114	.179	4.662*	1.040
limited in welfare provision to poor people	-.038	-.062	-1.606	1.039
R2 = .095 F = 5.572***				

\* $p<.05$ , \*\* $p<.01$ , \*\*\* $p<.001$

셋째, 베이비부머의 사회서비스 지출확대에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수들은 8.0%의 설명력을 가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회귀분석결과, 빈곤 개인책임( $B=-.112$ ,  $t=-2.636$ ,  $p<.01$ ), 빈곤의 사회책임( $B=.195$ ,  $t=4.392$ ,  $p<.001$ ), 수급자는 게으름( $B=.164$ ,  $t=4.181$ ,  $p<.001$ )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즉, 베이비부머가 빈곤의 개인책임이 덜 할수록, 빈곤의 사회책임이 더 높다고 할수록, 수급자는 게으르다는 인식이 높을수록 사회서비스 지출 확대가 더 높아져야 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Table 8. Regression analysis of Social-service expenditure expansion

	B	<i>B</i>	t	VIF
(constant)	2.759		12.034***	
gender	.069	.068	1.716	1.077
education level	-.001	-.002	-.048	1.166
family income	-0.001	.000	-.008	1.258
family type	.035	.022	.520	1.204
Income status	-.049	.038	.855	1.324
personal responsibility	-.117	-.112	-2.636**	1.212
social responsibility	.178	.195	4.392***	1.327
fatalism	-.014	-.023	-.544	1.224
equality of the income and wealth	.013	.032	.820	1.054
growth and distribution	-.004	-.006	-.148	1.061
beneficiaries laziness	.082	.164	4.181***	1.040
limited in welfare provision to poor people	.002	.004	.091	1.042
R2 = .080				

F = 4.487\*\*\*

\*p<.05, \*\*p<.01, \*\*\*p<.001

넷째, 베이비부머의 복지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수들은 12.9%의 설명력을 가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회귀분석결과, 성별( $B=.100$ ,  $t=2.573$ ,  $p<.01$ ), 빈곤 개인책임( $B=-.151$ ,  $t=-3.635$ ,  $p<.01$ ), 빈곤의 사회책임( $B=.149$ ,  $t=3.437$ ,  $p<.001$ ), 수급자는 게으름( $B=.251$ ,  $t=6.578$ ,  $p<.001$ )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즉, 베이비부머가 남성일수록, 빈곤의 개인책임이 덜 할수록, 빈곤의 사회책임이 더 높다고 할수록, 수급자는 게으르다는 인식이 높을수록 복지 의식이 더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Table 9. Regression analysis of Welfare-consciousness

	B	B	t	VIF
(constant)	9.285		16.129***	
gender	.261	.100	2.573**	1.076
education level	-.030	-.023	-.560	1.168
family income	-.001	-.042	-.991	1.261
family type	.222	.054	1.306	1.204
Income status	-.184	-.055	-1.271	1.325
personal responsibility	-.411	-.151	-3.635**	1.234
social responsibility	.350	.149	3.437***	1.333
fatalism	-.038	-.025	-.600	1.226
equality of the income and wealth	.071	.069	1.788	1.054
growth and distribution	.089	.057	1.479	1.058
beneficiaries laziness	.323	.251	6.578***	1.037
limited in welfare provision to poor people	-.010	-.008	-.212	1.043
R2 = .129*** F = 7.646***				

\*p<.05, \*\*p<.01, \*\*\*p<.001

## V. Conclusions

본 연구는 베이비부머의 복지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의 영향력을 규명하기 위한 시도이다. 이를 위해 2013년 한국복지패널8차 부가조사 데이터를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주요 변수의 기술통계 분석결과, 베이비부머의 복지 의식 중 '공공부조에 대한 지출 확대'는 평균 3.65(표준편차 .646), '사회보험에 대한 지출 확대'는 평균 3.53(표준편차 .554), '사회서비스에 대한 지출 확대'는 3.26(표준편차 .424)으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특히 공공부조에 대한 지출확대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베이비부머 복지 의식의 전체 평균은

3.45(표준편차 .428)으로 비교적 높은 복지 지출확대 의견을 나타냈다.

둘째, 베이비부머의 복지 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수들은 12.9%의 설명력을 가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회귀분석결과, 성별( $B=.100$ ,  $t=2.573$ ,  $p<.01$ ), 빈곤 개인책임( $B=-.151$ ,  $t=-3.635$ ,  $p<.01$ ), 빈곤의 사회책임( $B=.149$ ,  $t=3.437$ ,  $p<.001$ ), 수급자는 게으름( $B=.251$ ,  $t=6.578$ ,  $p<.001$ )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분석결과 토대로 주요 정책적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베이비부머의 복지 의식에 유의미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변수는 '빈곤의 사회책임'으로 나타났다. 앞서 빈곤원인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 '개인책임'은 평균 3.09(표준편차 .488)로 '사회책임' 2.80(표준편차 .556)보다 높게 분석되었다. 이상복과 김형관(2014)[13]의 연구에서도 빈곤의 개인책임론 평균 3.272, 사회구조책임론 2.908로 빈곤의 개인책임이 다소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회귀분석 결과에서는 빈곤의 사회책임론이 빈곤의 개인책임론보다 유의미하게 더 높은 영향력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베이비부머의 경우 산업화와 민주화 과정을 겪으면서 빈곤의 개인적 책임이나 운명론보다는 사회적 원인으로 인식하며 이를 사회적 연대를 통한 복지 지출 확대의 필요성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소득지위나 가구소득과 같은 사회경제적 지위요인은 유의미한 영향력을 보이지 않았다. 이는 Murri(2010)[20]의 교육수준과 소득수준, 계급관련 요인이 복지 의식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연구결과와 일치하고 있다.

둘째, 사회보험, 사회서비스 확대, 복지 의식에 있어 유의미한 영향력을 미치는 변수로 '수급자는 게으름'이라는 수급자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보인다는 점이다. 이러한 결과는 베이비부머의 경우 산업화 과정에서 학력자본을 토대로 노동욕구와 일자리 매칭이 비교적 순탄한 경험을 한 세대로 월 소득 역시 평균 443.8만원으로 한국의 기준중위소득(2015년 4인가구 422만원) 이상으로 나타난 결과로 해석된다.

본 연구는 국내에서 최초로 전국적인 표본 데이터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을 통해 한국사회의 주요 세대별 구성원이라 할 수 있는 베이비부머의 복지태도, 빈곤원인 인식, 복지 의식 정도, 복지 의식 결정요인에 대한 이해를 제고함에 일조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하겠다. 그러나 복지 의식에 대한 타 세대와의 비교 분석, 한국복지체제와 연관성에 비추어 베이비부머의 차별화된 특성 등을 해명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 또한 복지 의식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전반적으로 낮은 설명력을 보이고 있어 베이비부머의 복지 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변수에 대한 고려를 하지 못한 한계점도 있다.

## REFERENCES

[1] ymkim, "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the Korean

- baby-boomer's generation", Master's Thesis, Graduate School of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Feb. 2006.
- [2] ihham, "Chapter 8 Baby-boomers and generation of cultural experiences", Korea changed the culture and values, Nanam Publishing House, Sep. 2002.
- [3] kslee, "The next five years, prepare the way asset markets Cataclysm", Shindonga Money-today. May. 1. 2006.
- [4] ghjeong, Characteristics and Welfare Needs of the Korean Baby Boom Generation, Health-Welfare Policy Forum, Apr. 2011.
- [5] ghjeong e. al., Baby Boomers' Demographic Profiles and Welfare Needs,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Dec. 2010.
- [6] yrpark, and behong, A Study of new welfare model Development for life support After retiring baby boomer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2011.
- [7] jslee, "The Analysis of Factors Influencing on welfare attitudes", Social Welfare Policy, Vol. 36, No. 4, 73-99, Dec. 2009.
- [8] aywo, "A Comparative Study on the Attitudes toward Welfare among Social Classes", Thesis, Graduate School of Catholic University. Dec. 2000.
- [9] hykoo, "A Study on the Influential Factors to the Civil Servants' Welfare Attitudes,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Education, Vol. 30, 1-27, Jun. 2015.
- [10] Taylor Gooby, "Attitudes to Welfare". Journal of Social Policy, Vol. 14, No 1, 73-81, 1985.
- [11] skkim, and wojong, A Study on the Welfare Attitudes of 1990s Korean",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Vol. 25, 1-33, 1995.
- [12] Feagin, J. R., "Poverty: We still believe that God helps those who help themselves", Psychology Today, Vol. 6, No. 2, 101-129, 1972.
- [13] srlee, and hkkim, "Analysis on the Public Perceptions about the Causes of the Poverty in Korea,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Vol. 66, No. 1, 163-189, Feb. 2014.
- [14] Gilens, M., Why American Hate Welfare: Race, Media and the Politics of Antipoverty Policy,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99.
- [15] gchoi, and jsryu, "On the Trend and Characteristics of Welfare Consciousness im Korea: the duality of responsibility and commitment in social welfare",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Studies, Vol. 16, 223-254, Winter. 2000.
- [16] mhryu, and ychoi, "Class, Self-interest, and the Attitude toward the Social Welfare Policies", Korean Policy Sciences, Vol. 13, No. 1, 191-210, Mar. 2009.
- [17] ijlee, "A Study on the Welfare Consciousness of Korean People after IMF System in 1990th",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Studies, Vol. 12, 85-110, 1998.
- [18] sykim, "A Study on The Determinants of Koreans' Welfare Consciousness: Focusing on State's Responsibilities upon Public Agenda, Study & Research, Vol. 11, No. 1, 87-105, Mar. 2010.
- [19] hglee, and yjpark, "Economic Impact on the Level of Household Welfare Attitudes :Focusing on the Mediating Effects of Political Attitudes and Level of Education, Journal of Critical Social Welfare, Vol. 48, 362-397, 2015.
- [20] Muuri, A., "The Impact of the use of the social welfare services or social security benefits on attitudes to social welfare policies", International Journal of Social Welfare, Vol. 19, No. 2, 182-193, 2010.
- [21] mjkim, and egji, "The study about the level of social capital the residents perceiving and factors influencing on the residents' social welfare awareness", 2015 Union Social Policy Joint Conference, 2015.

### Authors



Hyoung Ha Lee received the Ph.D. degrees in Social Welfare from Dongshin University, Korea, in 2004.

Dr. Lee joined the faculty of the Department of Social Welfare at Kwangju women's University,

Kwangju, Korea, in 2004. He is currently a Professor in the Department of Social Welfare, Kwangju women's University. He is interested in social welfare policy, law, and muticultural social welfare.